



▶ 농장 체험하며 쉬는 '뉴질랜드 팜스테이'

해외에서 현지인의 삶을 경험해 보는 여행은 색다른 맛을 안긴다. 관광지 위주로 돌아보는 일반 여행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낯것 그대로의 일상을 접할 수 있다.

뉴질랜드관광청이 뉴질랜드인의 삶과 농장에서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팜스테이 농장 세 곳을 소개했다.

마운트 후이아 팜스테이 북섬 중부

마너와투(Manawatu)의 산악지대에 있는 농장이다. 농장주 부부와 함께 지내며 양털 깎기, 양몰이, 달걀 깨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인근에서는 수영, 송어 낚시, 사이클링, 골프 등을 즐길 수 있다. 손님용 침실이나 통나무집을 이용한다. 손님용 침실 상품은 식사가 포함되고 1박 요금은 2인 기준 225뉴질랜드달러(약 16만8천원). 통나무집 1박

요금: 성인 1인당 75뉴질랜드달러, 어린이(1~14세) 45뉴질랜드달러. www.mthuia.co.nz

스프레이 포인트 스테이션 남섬 말버러(Marlborough)의 와이호피아 계곡에 있다. 숙소는 소몰이꾼의 거처를 복원한 집이나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노천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산악자전거, 헬기 투어, 사륜구동 목장 투어, 조류·동물 관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인근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 1박 요금은 숙소 종류에 따라 250뉴질랜드달러 또는 495뉴질랜드달러. www.offthemap.co.nz

실버스트림 알파카 팜스테이 남섬 캔터베리(Canterbury)에 있는 알파카 농장이다.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며 교감할 수 있다. 알파카 털로 만든 모자, 스카프도 살 수 있다. 숙소는 욕실과 주방이 딸린 5인용 통나무집 2채가 있다. 인근에서 낚시, 승마를 즐길 수 있다. 1박 요금은 2인 기준 270뉴질랜드달러이고, 최대 5인까지 1명 늘 때마다 30뉴질랜드달러가 추가된다. www.alpaca-farmstay.co.nz

▶ 레고랜드 재팬 '브릭 크리스마스' 이벤트



일본 나고야에 있는 키즈 테마파크 레고랜드 재팬이 내년 1월 7일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브릭 크리스마스(Brixmas)'를 개최한다. 크리스마스 빌리지에 레고블록 약 61만 개로 제작한 높이 약 10m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레고블록 약 25만 개로 만든 산타와 사슴 썰매를 진열한다.

포토존 세 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포토 랠리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빌리지의 특설 무대에서는 매일 화려한 쇼가 펼쳐지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크리스마스 기념 레고 모델을 조립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크리스마스 음식과 상품도 판매된다. 레고랜드 재팬 호텔에서는 눈사람과 크리스마스트리의 레고 모델이 등장해 고객을 맞는다. 호텔 2층 스카이라인 바에서는 크리스마스 디너를 즐길 수 있다.

▶ 1만1천m 상공에서 감상하는 오로라

캐나다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의 오로라 여행지로 꼽힌다. 특히 캐나다 북부의 노스웨스트 준주와 유콘 준주는 오로라 명소로 명성이 높다. 내년 2월 캐나다 유콘 준주 3만6천 피트(약 1만1천m) 상공에서 오로라를 감상하는 '오로라 360' 상품이 출시됐다.

오로라 360 제트기 탑승객은 80명으로 제한되며, 기상 상태에 따라 내년 2월 7일 또는 8일에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탑승객은 기내에서 유콘에서 생산된 진을 맛보고, 오로라 전문 사진작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오로라 360 상품 가격은 1천45캐나다달러(약 90만원). 오로라 360이 포함된 4박 패키지 상품은 2천939캐나다달러(약 250만원, 이상 세금 포함)다. 패키지 상품은 유콘의 주도인 화이트호스 소재 호텔 4박, 저녁 식사 3회, 타키나온천 입장권, 유콘 야생동물보호지역 가이드 투어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관광청은 "오로라 360 비행기는 1년 내내 오로라가 관측되는 지역인 '오로라 오발(Oval)'에서 이륙하는 세계 유일의 프라이빗 제트기로 오로라 관측 확률이 100%"라고 설명했다. www.aurora-360.ca

▶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페루 비니쿤카

페루관광청은 일명 '무지개 산'으로 알려진 비니쿤카(Vinicunca)가 인기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케추아어로 '일곱 색깔 산'을 뜻하는 비니쿤카는 퇴적암의 침식작용이 만든 아름다운 무지개빛이 특징. 페루 쿠스코의 최고봉인 네바도 아우상가테로 가는 길목에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인데스의 산과 마을, 라마와 알파카 무리도 만날 수 있다. 페루관광청 관계자는 "하루 4천~5천 명이 방문하는 마추픽추가 인기 명소 1위이지만 비니쿤카도 방문객이 하루 최대 2천500명을 기록하며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라스베이거스의 신종 액티비티

라스베이거스관광청이 관광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새로운 액티비티를 소개했다.

플라이 링크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조성한 복합 야외 문화공간 '링크 프로메나드'에 들어선 집라인이다. 높이 약 38m에서 출발해 프로메나드 끝자락의 하이틀러까지 340m를 35초 만에 주파하는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1회 10명까지 동시 출발할 수 있다. 요금은 20달러부터. www.flylink.com

고카트 실내 레이싱 팜스호텔 맞은편에

있는 폴 포지션 레이스웨이에서 즐길 수 있다. 가장 인기가 높은 코스는 10분간 레이싱을 펼치는 어라이브 앤 드라이브. 단체의 경우 파티룸 대여와 간단한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 메인 스트립과 레이싱 장을 오가는 무료 순환 버스가 운영된다. www.polepositionraceway.com/las-vegas/

코스모폴리탄 라스베이거스 아이스 링크

코스모폴리탄호텔의 수영장이 아이스링크로 변신한다. 12월 20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스케이트 대여료는 호텔 투숙객 10달러, 일반 20달러부터다. www.cosmopolitanlasvegas.com/ice-rink

보이드 VR 가상 체험장

베네시안과 팔라조 호텔 사이에 있는 럭셔리 쇼핑몰 그랜드 캐널 스퀘에 있다. 총 3개의 이색 테마 VR 게임으로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 게임당 30분이 소요되며 10세 이상, 신장 122cm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주중 29,95달러부터. www.thevoid.com/locations/lasvegas



▶ 노르웨이 해저 레스토랑 내년 4월 문 연다

노르웨이 최남단 도시인 린데스네스(Lindesnes)에서 반잠수정 형태의 구조물로 만든 해저 레스토랑이 문을 연다.

노르웨이관광청은 수면 아래를 의미하는 '언더'(Under)로 명명된 이 레스토랑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저 레스토랑이 될 것이라며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정식 개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다란 잠망경 형태인 '언더'는 약 1천500~2천 중량의 구조물로 바닥의 길이는 26.5m, 폭은 12.5m이고, 넓이는 600㎡ 규모다. 한꺼번에 최대 100명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구조물 설계는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뉴욕 타임스퀘어 개보수 공사를 맡았던 노르웨이 건축사무소 '스네티타'(Snøhetta)가 맡았다. 6개월간 바지선에서 강화 콘크리트를 이용해 50cm 두께로 구조물을 제작한 뒤 지난 7월 전체 구조물의 절반 정도를 바닷속에 넣었다.

바깥에서 보면 마치 바위가 바다에서 솟아오른 모양새다.

방문객은 육지 쪽과 연결된 입구를 거쳐 계단을 따라 수중 5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다. 식당 안에서는 가로 11m, 세로 3.5m, 두께 32cm인 전망 유리창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거대한 대구, 형형색색 물고기, 바닷가재, 물개, 돌발상어, 해초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언더'는 인근 해역에서 잡은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와 양고기·바닷새 등을 이용한 특별 요리를 코스로 내놓는다.

노르웨이관광청은 "파도가 많이 칠 때 바다의 울부짖는 듯한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 폭풍우가 치는 날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 아웃리거 모리셔스, 풍성한 부가 서비스

아웃리거 모리셔스 비치 리조트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선보인다. 울인클루시브 프로모션으로 예약하면 무료 마사지(성인), 다양한 음료 제공, 아이스크림 제공(어린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프로모션은 출발일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프 보드 프로모션으로 예약하면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옛지워터 레스토랑 조식을 무료로 먹고, 위클리 타파스 나이트와 카니보어 나이트를 즐길 수 있다. 체크인 시간인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한 고객에게는 아침 또는 점심을 제공한다. 저녁 늦게 도착하는 고객에게는 객실로 저녁을 배달해 준다. 아웃리거 모리셔스 비치 리조트는 인도양 조망 가능 객실 181개와 모리셔스 현지식으로 유명한 플랜테이션 클럽 등 다양한 레스토랑 외에 키즈 클럽,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켄싱턴 제주 '로맨틱 홀리데이' 패키지



켄싱턴 제주 호텔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휴가객을 위한 '로맨틱 홀리데이' 패키지를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내놓는다. 1박 당 최대 5만원을 할인해 주고, 2박 이상 투숙하면 로맨틱 스페셜 디너 2인 1회 혜택을 제공한다. 패키지는 디럭스 룸 이용에 아침이나 점심 제공으로 구성된다. 식사는 뷔페, 이탈리아 식당, 한식당, 풀사이트 카페 등에서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온수가 있는 야외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로비 포토존에는 높이 5m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다.

▼ 임피리얼 팰리스 '가든 스타일 웨딩'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이 낭만적인 분위기의 가든 스타일 웨딩 서비스를 선보인다. 플라워 장식은 클래식한 테이블, 오브제와 함께 고풍스럽게 연출된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서약하는 무대에는 화이트 백드롭을 사용한다. 웨딩 코디네이터들이 상주하고, 감각적인 플라워 디자인을 선보이는 라꼬메뜨(La Comete) 플라워 팀이 대기한다. 원형이나 직각 테이블이 조화로운 콤비네이션 스타일이나 댄스 플로어를 접목한 댄스파티 웨딩도 준비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3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웨딩 홀과 최대 6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웨딩 홀을 갖추고 있다. ☎ 02-3440-8100~3



▲ 클럽메드 발리 '먹고 즐기고 휴식하라' 이벤트

클럽메드 발리가 특별하고 활기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먹고, 즐기고, 휴식하라'(Eat, Play, Renew) 이벤트를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에 투숙객은 발리 예술가와 강사들이 진행하는 8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발리 현지식을 포함한 전 세계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발리 전통 공연인 '과일 카빙'을 체험할 수 있다. 발리 전통 악기와 춤도 배울 수 있다. 웃음과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웃음 요가', 마카 펜과 관화를 이용해 셀카를 제작하는 '아이 러브 미' 셀카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건강식 워크숍과 명상은 12월 2~12일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벤트 상세 정보는 클럽메드 홈페이지(www.clubme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래드 강남 최상층서 즐기는 요가

글래드 라이브 강남의 스파 달팡 글래드라이브는 호텔 최상층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요가 클래스'를 운영한다. 요가 입문자를 위한 달마하타, 심신을 치유하는 릴렉스 클래스, 임산부를 위한 요가 클래스, 몸을 수련해 마음을 부드럽고 견고하게 만드는 플로우 클래스, 좋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시바난다 클래스 등 다양한 요가를 선택해 배울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클래스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라티 로터스 라운지 요가 클래스 10회 신규 등록 시 샴푸, 컨디셔너, 보디워시, 보디로션이 포함된 3만2천원 상당의 아베다 4종 트래블 키트를 선착순 30명에게 선물로 제공한다. 호텔 투숙객은 5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회원 3만원, 투숙객 1만5천원.



▲ 제주신화월드 '겨울 여행 패키지' 출시

제주신화월드가 겨울 여행객을 위한 '제주, 겨울의 선택' 패키지를 내년 3월 말까지 판매한다. 이 패키지에서 고객은 숙박요금 할인과 리조트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할인되는 요금은 숙박 일수에 따라 1박 3만원, 2박 10만원, 3박 20만원이다. 제공되는 바우처 금액은 1박 5만원 상당, 2박 15만원 상당, 3박 25만원이다. 바우처는 레스토랑과 제주신화월드 어트랙션 리테일숍, 신화테마파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는 총 61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신화월드에는 신화테마파크, 신화워터파크, 한류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YG리퍼블릭 등이 있다. www.shinhaworld.com, ☎ 1670-8800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시애틀 직항 노선 개설

싱가포르항공이 내년 9월 3일부터 싱가포르~시애틀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 운항 일정은 주 3회(화·목·토)로 시작해 10월부터 주 4회(일요일 추가)로 증편한다. 매주 화·목·토 오전 9시 25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당일 오전 9시 5분 시애틀에 도착하며, 복항편은 오전 10시 40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온다.



이 노선에는 비즈니스석 42석, 프리미엄 일반석 24석, 일반석 187석으로 구성된 에어버스 A350-900기종이 투입된다. 한편 싱가포르항공은 11월부터 싱가포르~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에어버스 A350-900ULR 기종을 투입했다. 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은 11월 28일부터 주 7회에서 주 10회로 증편됐다. 싱가포르항공은 현재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미주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오만항공, 고객-직원 직접 소통 서비스 시작

오만항공은 메신저 앱인 '왓츠앱'(WhatsApp)을 통해 고객과 오만항공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 휴대전화에 오만항공 번호(+968 7196 0111)를 추가한 후 왓츠앱에서 오만항공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전담 직원과 영어로 상담할 수 있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항공권 예약 확인, 체크인, 탑승권, 항공편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한국 시간 오후 1~7시, 오만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왓츠앱은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 앱으로 전 세계 15억 명이 이용하고 있다. 오만항공은 수도 무스카트를 거점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0개국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에서 무스카트까지는 동남아, 중동 등을 1회 경유해 갈 수 있다.



베트남항공, 동절기 인천~나트랑 노선 증편



베트남항공은 동절기인 12월 1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인천~나트랑(냐짱) 노선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한다. 또 내년부터 인천~호찌민, 부산~호찌민 노선에 최신 기종인 B787-10을 투입한다. 베트남항공은 내년 7월 31일까지 동남아/유럽/호주 노선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왕복권 기준으로 동남아 27만1천900원, 유럽 69만3천800원, 호주 77만2천600원부터다. 항공권 유효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



에티하드항공, 인천 노선에 최신 '드림라이너' 투입

아랍에미리트 국영 에티하드항공은 12월 3일부터 전 세계 에티하드항공 취항지 중 최초로 인천~아부다비 구간에 B787-10 항공기를 투입한다. B787-10 항공기는 '드림라이너'로 불리는 B787 시리즈의 가장 최신 기종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항공기라는 평을 듣는다. 인체에 적합하게 기내 습도와 기압을 자동 조절하고 고급 공기 필터를 사용해 승객들에게 쾌적한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 에티하드항공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창사 15주년과 한국 취항 8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인천 노선에 투입되는 B787-10 항공기는 현재 운항 중인 B787-9보다 수용 인원이 12% 늘어나 비즈니스석 32석, 일반석 304석으로 구성된다. 안진문 에티하드항공 한국지사장은 "취항지 중 최초로 인천~아부다비 구간에 B787-10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한국 시장은 2010년 인천~아부다비 노선 운항을 시작한 이래 승객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1만 명이 이용하는 아시아의 중요한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티하드항공은 신개념 고객 맞춤형 서비스인 '현명한 선택'(Choose Well) 캠페인을 시작한다. '현명한 선택'은 공항 라운지, 입출국 리무진 서비스, 식사, 주류 등을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석 고객이 일등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고급 와인이나 주류, 식사 등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안 지사장은 "에티하드항공은 2003년 창사 이후 빠르게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항공사 중 하나가 됐다"며 "활기찬 아부다비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서울, 영유아 간식·이유식 무료 제공

에어서울이 내년 4월 말까지 인천~동남아/괌 노선에서 영유아 간식과 이유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괌, 다낭, 코타키나발루, 보라카이, 홍콩, 캄보디아 씨엠립(시엠레아프) 노선에서 영유아 식품기업 엘빈즈의 배도라지 음료와 무첨가 유기농 라이스팝 등을 제공한다. 에어서울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승객 반응에 따라 제공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진만 에어서울 경영본부장은 "가족 동반 승객이 많은 괌과 동남아 노선에서 영유아 승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에어서울 승객을 위해 제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크루즈, 마닐라 출발 '50만원짜리 상품' 출시

말레이시아 국적 스타크루즈가 내년 1월까지 대표 선박인 슈퍼스타 버그호를 이용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베트남을 일주하는 5박 6일 상품을 선보인다. 크루즈 객실, 전 일정 식사, 엔터테인먼트 쇼 관람, 워터 슬라이드 이용 등을 포함한 상품 가격은 50만원이다. 발코니 객실을 이용하면 크루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900홍콩달러 상당의 크레디트를 증정한다. 이번 상품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베트남 나트랑(냐짱), 할롱 베이, 호찌민(또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을 기항하는 일정이다. 출발일은 12월 4·9·14·19일, 1월 3일이다. 슈퍼스타 버그호는 레스토랑·카페·바, 수영장, 자쿠지, 카지노, 피트니스센터, 면세점, 스파를 갖추고 있다. 매일 밤 리도극장에서는 라스베이거스식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인 승무원도 상주한다. www.starcrui sekorea.com, ☎ 02-733-9033

